



반산스님의

### 경전읽기

#### 화엄경 ①

제16 범행품(梵行品)이다. 이 품은 계승이 없다. 대강의 뜻만 살펴본다면, 앞에서는 십주(十住)의 지위를 위주로 하여 행(行)을 말하였고, 여기서는 통틀어서 청정한 행을 말하고, 참된 지혜에 의지하여 여러의 열 가지 힘을 닦으므로, 관과 행(觀行)이 서로 어울리고 자비와 지혜가 원용하여 '처음 발심하는 자리에서 곧 바른 깨달음을 이룬다(初發心時便成正覺)'는 돈오성불(頓悟成佛)의 사상을 밝히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 깨달음은 '철저한 자오자득(自悟自得)의 경계'라는 설명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모든 법에 두 가지 이해를 내지 아니하여 온갖 부처님 법이 빨리 앞에 나타날 것이며, 처음 발심할 때에 아늑다람삼막삼보리를 얻을 것이며,

평등하고 수가 없는 법문을 말 못하지만 중생위해 말하매 집착이 없네(法自性如虛空하여一切寂滅悉平等이며 法門無數不可說爲衆生說無所着이로다.)"

다음 제18 명법품(明法品)을 살펴보자. 앞의 품에서는 초발심의 공덕을 말한데 이어 이 품에서는 정진혜(精進慧) 보살의 물음을 받고 법혜(法慧) 보살이 게으르지 않는 열 가지 행법(行法)과 이 행법으로 이루는 열 가지 청정한 법을 말하였다.

"어지하면 사자처럼 두려움 없고 행하는 일 청정하기 보름 달 같고 어떻게 부처 공덕 닦아 익히면 불 안 묻는 연꽃과 같사오리까(云何無畏如獅子하고 所行清淨如滿月하며 云何修習佛功德如蓮華不着水니잇고) / 나아가고 머뭇은 코끼리 같고 옹망하고 공포 없은 사자 같으며 편안하기 태

### 깨달음은 철저한 자오자득

#### 밝은 지혜 바다같이 번뇌의 열 식혀

온갖 법이 곧 마음의 성품임을 알 것이지, 지혜의 몸을 성취하되 다른 이를 말미암아 깨닫지 아니하리라(於諸法中不主二解하면 一切佛法이 疾得現前하야 初發心時에 即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다 知一切法이 即心自性하야 成就慧身호대 不由他悟하리라.)"

다음은 제17 초발심공덕품(初發心功德品)이다. 제16품에서 수행하는 지위를 갖추었으므로 훌륭한 공덕이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니, 심주의 공덕은 한 계단보다 다음 한 계단이 더 훌륭한 공덕을 말하였다. 처음 발심한 공덕은 광대하고 끝이 없어 보현보살의 모든 덕을 포섭하였으니, 그 공덕이 법계와 동등하다고 말하였다.

"한량없는 큰 원력 부사의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청정케 하고 공하고 무상(無相), 무원(無願) 의지 없으나 서원의 힘으로써 밝게 나타나(無量大師難思議라 願令衆生悉清淨하니 空無相願無依處를 以願力故皆明顯이로다) / 법의 성품 허공과 같은 줄 아니 온갖 것 고요하여다

산 같고 지혜는 바다 같으며 가물 때에 소낙비 열을 식히듯 하네(蓮止安徐如象王하며 勇猛無畏猶獅子하며 不動如山智如海하며 亦如大雨除衆熱이로다.)"

여기서는 문답형식의 계승인데 두려움이 없는 것은 옹망하고 때문이요, 몸가짐이 여유롭고 편안한 것은 마치 코끼리 같다고 하였다. 선정을 많이 닦으면 청산처럼 요동이 없고, 지혜가 밝으면 한 여를 소낙비가 더위를 면하게 해주는 것처럼, 법의 비가 번뇌의 열을 식힌다는 의미이리라.

우리네 기우에 한여름이면 법당의 양초가 축 늘어지는데, 인도는 켈카타의 대교(大橋)가 휘청 엇가락처럼 늘어났다고 한다. 우리들은 여름 석달도 덥다고 아단인데 인도나 열대지방의 살인적인 더위는 어찌 설명해야 할는지!

이렇게 제3회 설법을 마치고, 다음 호에서는 네 번째 법회 장소인 아미타궁으로 올라가기로 한다.

■ 불교사상사상연구원



그림·문병성

## 물질도 궁극엔 공간 만나

### 불교와 과학 <30>

이 세계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 고대 그리스 철학자 탈레스는 2500여 년 전 이 질문을 던지면서 그 답을 '물'이라고 했다. 당시의 어떤 철학자는 불이라고 했다. 아톰은 오늘의 과학의 입장에서 본다면 매우 유치한 답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당시로서는 매우 획기적인 질문이었으며 그 답 또한 충격적인 것이었다. 그 이전 사람들은 세계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질문한 것이 아니라, 무슨 힘에 의해 작동되고 있는가를 물었기 때문이다. 이런 질문 방식을 신화적 세계관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세계가 거북이 등에 얹혀 움직인다거나, 거인의 손에 받쳐 들려진 것이라는 식의 설명을 신화적 세계관이라고 말한다.

그런 신화적 질문이 아니라 세계의 궁극적인 구성물질이 무엇인가 하는 과학적 질문을 던졌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인식의 전환이었으며, 이로부터 서구철학과 과학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탈레스에 이어 데모클리토스는 그 궁극적인 구성요인을 더 이상 나누어질 수 없다는 뜻에서 아톰이라고 이름 붙였다. 이러한 생각은 달턴이 근대적인 의미의 원자를 찾아낸 때까지 2000년 이상이나 서구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해 왔다.

근대과학은 사물을 구성하는 궁극적인 요소를 분자라고 했다. 18세기 말 화학자인 라부아지에의 물 분자가 산소와 탄소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래서 분자는 그보다 더 작은 원자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사물의 궁극적인 요소물질은 원자라는 생각은 이후 100년을 이어 갔다. 그러나 1899년 러더포드는 방사선을 방출하는 우라늄이 두 가지의 방사선을 방출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 중 한 방사선은 원자를 투과해야 하는데도 극소수의 방사선이 원자에서 튕겨 나오는 실험결과를 얻었다. 이런 방사선을 그는 알파선이라고 명명했다. 이 실험결과를 분석한 러더포드는 결국 알파 입자보다 무거운 그 무엇이 원자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과 충돌하여 튕겨져 나온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 무엇이 입자는 원자 내부에 존재하는 또 다른 단단한 입자이며, 그것이 바로 원자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래서 물질의 최종 구성요소가 원자가 아니라 이제는 전자와 원자핵이라는 결론으로 발전하였다. 러더포드의 발견은 소립자 연구를 현대 입자물리학의 무

대 위로 본격적으로 올려놓게 한 발단이 되었다. 이후 러더포드가 있었던 케번디시 연구소의 젊은 연구자인 채드윅은 원자핵이 다시 중성자와 양성자로 구성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채드윅은 이 발견으로 1935년 노벨상을 받았고, 이제 중성자와 양성자로 구성된 최종 요소가 바로 세계를 구성하는 기본입자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이후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된 소립자들이 계속 발견되어 백여 개가 넘게 되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수의 소립자들이 과연 이 세계를 구성하는 기본입자일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하였다. 왜냐하면 기본 구성물질이 그 수에 있어서 자꾸 많아지면 그것들을 기본 구성자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드디어 1964년 겔만과 츠바이크는 독자적으로 마지막 구성물질이라고 생각했던 양성자와 중성자가 그 보다 작은 쿼크라는 이름의 소립자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밝혀 내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6 종류의 쿼크와 전자를 포함한 6 종류의 렙톤이라는 기본입자가 물질 세계의 끝을 구성하는 입자라고 인식하고 있다.

#### 물질의 끝

#### 과학 물질 기본요소 쿼크와 렙톤 불교 호한 존재 인연으로 형상화

물질의 끝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불교에서도 물질의 궁극적인 기본단위를 말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극미(極微)의 단위이다. 극미는 가장 작다는 뜻에서 최색(最細色)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최소단위로서 단순히 물질의 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空)과 만날 수 있는 물질의 끝이다. 극미의 단위는 입자물리학에서 말하는 소립자처럼 당연히 감각적 경험의 대상이 아니다. 이처럼 극미가 소립자와 같이 최색으로서 물질의 최소단위 이면서도 소립자와 다른 점은 경험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인연의 방식으로 극미의 단위들이 묶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극미의 묶임을 불교에서는 인연의 취집(聚集)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을 바로 색(色)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불교의 물질 단위의 이해는 입자물리학처럼 단순히 물질 세계에 대한 끝을 찾는 작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마음의 끝을 찾는 작업과 반드시 연결해야 한다. 서구사 유에서는 물질의 끝과 마음의 끝은 전혀 다른 차원이지만 불교에서는 그 서로의 끝이 맞닿아 있다. 그것이 바로 공에 대한 이해라고 볼 수 있다. 극미는 아마도 앞으로 발견될 최고의 전자현미경으로도 볼 수 없을지 모르나, 그러나 헤안(慧眼)의 현미경을 갖고 있는 이라면 볼 수 있을 것 같다.

■ 최희종/상지대 교수 jchoi@chek.sangji.ac.kr

## 케로악 육필 '노상에서' 20억원에 팔린다

### 지구촌 불교 / 美 불교소설 경매

미국의 대표적인 불교소설로 꼽히는 <노상에서(On the Road)>의 육필원고가 크리스티 경매시장(Christie Auction·美)에서 150만 달러(약 20억 원)를 웃도는 낙찰가로 경매될 전망이다.

AP통신은 5월 27일 "1·2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황폐해진 미주 및 유럽대륙 젊은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던 잭 케로악(Jack Kerouac, 1922~1969·사건)의 소설 <노상에서>의 육필원고가 크리스티 경매시장에 150만 달러로 공시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카프카의 소설 <심판(The Trial)>의 육필원고가 1988년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198만 달러로 팔린 이후 소설 부분 최고가이다.

육필원고는 길이 137m 폭 23cm의 두루마리 형태로, 잭 케로악의 사망과 함께 그의 세 번째 부인인 스틸라 샘파스(Stella Sampas)에게 전해졌는데, 1990년 그녀의 사망 이후 그녀의 친정 식구들이 보관하다가 최근 가족들의 결정에 따라 크리스티 경매시장에 나오게 됐다.



잭 케로악은 1950년대 전후 미국에서 거세게 몰아쳤던 '동양 열풍'의 중심 기류를 이끌었던 소설가로, <노상에서>를 비롯해 <진리의 슬픔(Dharma Bum)>, <거대한 만(Big Sur)>, <지하에 사는 사람들(Subterraneans)> 등의 작품을 통해 불교적 세계관을 펼쳤다. 잭 케로악이 1948년에 쓴 <노상에서>는 살 파라다이스(Sal Paradise)라는 이름의 주인공이 미국에서 멕시코로 여행하면서 물질의 중요만을 추구하는 현대 사회의 그늘을 보고, 지금과는 다른 가치관 부채의 가르침으로 눈을 돌려야 함을 깨닫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소설은 당시 출판계의 관심을 끌지 못해 서지에 묻혀있다가 후기 작품들의 대중적 인기로 힘입어 비평가들로부터 비트 세대(Beat Generation)를 대표하는 최고의 소설로 평가받으면서 1952년에야 출간될 수 있었다.

#### 비트세대 영혼 달랜 최고 불서

#### "물질주의 폐해극복 동양적 삶 제시"

출판된지 반세기가 지났지만 지금도 잭 케로악의 열성 팬들은 '네바다(Nevada) 주에서 발견된 화강암에는 빙하시대를 견디는 침엽수의 화석이 있다. 이는 어느 시대이든 당대의 역경을 이겨내는 힘이 있으며, 그것을 찾아낼 때 풍요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주인공 살 파라다이스의 독백을 애송할 정도다. 이 독백에는 동양의 진리 즉 부처의 가르침으로 미국을 새롭게 건설하자는 잭 케로악의 주장이 담겨있다. 비트세대는 미국의 50~60년대에 동양적 가치관에 몰두했던 젊은 문인 그룹으로 잭 케로악을 비롯해 알렌 긴즈버그, 조안 키거 등이 주요 인물이다. 미국의 문화비평가들은 "냉전 속에서 극단으로 치달았던 사상적 대립과 전쟁의 위협이나 자본주의로 광배해진 물질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동양적 삶의 태도를 통해 보여 주었다"라는 말로 이들의 작품을 평가하고 있다.

크리스티 경매시장 서지 담당인 쿠퍼(Cooper) 씨는 "완전한 형태의 육필원고이고 지금도 잭 케로악의 삶을 동경하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공시 금액보다 더 큰 액수에 낙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goboo@buddhapa.com



# 韓國의 佛畫

### 불교출판사상 최대의 불사, 두 번 다시 하기 힘든 한국불화의 집대성

해를 거듭할수록 훼손으로 인해 친견하기 어려워지는 각종 불화들! 우리의 성보인 이 불화(탱화)들은 장엄한 불국도의 화현이요 신심의 결정체이며, 불보살님의 원만한 상호에서 우러나오는 복덕의 광명은 우리의 어둠을 없애주고 간절한 바람을 성취시켜 줍니다. 저희 성보문화재연구원에서는 『한국의 불화』 1차분 20권의 완간에 이어 2차분 20권의 차질없는 간행을 새천년의 원으로 삼아 일심으로 정진하겠습니다. 부디 이 기회에 불화집을 구입하고 또 2차분 회원이 되시어 불보살님과 함께하는 인연을 맺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보문화재연구원 총재/석정 이사장 / 범하 원장 / 김현준 이사 / 무주 무현 동욱 태허 정우 명신 지현 정수 현기 우진 임창욱 홍윤식 장충식 손창길 조혜수 조경숙

구입문의 / 성보문화재연구원 ☎ (02) 587-6613, 701-6830, 6832 팩스 (02) 586-9078

### 『한국의 불화』 2차분 20권 불사에 동참을!

성보문화재연구원에서는 올해부터 향후 5년에 걸쳐 2차분 20권을 편찬함으로써, 이 땅의 독특한 성보요 전체의 자랑거리인 우리의 불화를 총망라하여 『한국의 불화』 총 40권을 완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매년 4권씩 발간하는 이 불화집의 편찬은 방대한 예산과 많은 인력, 그리고 지극한 정성을 필요로 합니다. 그야말로 불교계 전체의 일이요, 감히 한 연구단체에서는 이루어내기 어려운 불사입니다. 부디 사방의 불보살님과 인연을 맺는 이 불사에 뜻있는 분들이 동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청하옵니다.

- 회원 모집기간: 2001. 9. 15까지
- 회원동참비: 120만원 (20권 1질, 카드분납 가능)

▶ 회원이 되신 분은 20권 각 권마다 시주질(이름)을 밝혀 불언을 영구히 남깁니다.

### 原畫 그대로의 화려함이 살아 있습니다

- 편형: 가로 257 x 348mm (타블로이드판형)
- 면수: 각권 250쪽 내외 (원색화보, 해설, 표지 수록)
- 장정: 전면 컬러·양장제본
- 발행처: 성보문화재연구원

### 1차분 20권 완간기념 특별가 판매



- 판매기간: 2001. 9. 15까지(정가:각권 9만원, 총180만원)
- 특별보급가: 120만원(20권 1질, 카드분납 가능)

1차분 수록대상(1996~2000년)  
통도사·해인사·송광사·직지사·월정사·화엄사·선암사·금산사·선운사·마곡사·법주사 등 11개 본말사 564개 사찰 및 박물관 7개 소에 소장되어 있는 1,621점의 탱화(3,674점 수록)

### 소장하면 소장할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책

- ◆ 한국의 불화를 집대성하기 위해 전국의 사찰 및 국공립·사립박물관, 대학박물관 등 국내외에 산재한 불화를 직접 조사하여 수록했습니다.
- ◆ 원색도판을 풍부하게 실어 원화를 직접 대하는 느낌이 들도록 하였고, 각 불화에 대한 해설과 함께 畫記를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